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와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간호사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장 · 신한대학교 교수  
김 현 속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에 대해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는 1990년 9월에 창립했다. 산업간호 분야에 대한 학술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 건강 및 산업간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됐다. '산업보건'의 개념이 '직업건강'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회 명칭을 2012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로 변경했다. 그 동안 산업간호에 관한 연구와 이론 개발, 보건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산업간호에 관한 국제교류, 학술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관리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산학협동과정 운영으로 직업건강간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왔으며, 2009년에는 한국산업간호학회(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가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로 등록되었다. 또한 매년 보건관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관리자의 기획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기획 교육, 산업간호에 관한 국제교류 및 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산업간호사들의 위상 재고 및 역량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다. 올해는 국제학술대회인 국제산업보건대회(ICOH)와 국제지역사회간호학회(ICCHNR)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우리나라의 직업건강간호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외국과의 학문적 교류를 확대해 세계 속의 학회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근로자 건강증진과 산업간호사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근로자의 보건의료서비스 요구가 높아지고 근로자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산업전문간호사와 직업건강관리사가 배출되었다. 전문적인 보건관리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직으로서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2002년, 산업전문간호사제도를 신설하였고 2006년 처음으로 '산업전문간호사'를 배출한 후, 123명의 산업전문간호사(2013년 기준)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2년간 석사과정 교육에 의한 산업전문간호사와는 달리, 2011년 처음 직업건강관리사를 배출하였다. 이는 96시간의 집중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업간호협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얻게 되는데, 2013년 12월 현재까지 총 116명의 직업건강관리사가 자격을 갖췄다. 그러나 배출된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그래서 무엇보다 법적 및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관리자로서 산업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보건관리자 선임제도의 완화 등으로 산업간호사의 고용불안정 및 사기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있으나 IMF 즈음, 1997년에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제정된 『기업활동규제 완화와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의무고용 완화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보건관리자를 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뇌·심혈관질환 관리, 근골격계질환 관리, 정신건강 등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근로자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선임이 더욱 더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 추락, 뇌·심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사업장 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전임 보건관리자의 선임을 통해 산업간호사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산업간호사를 경쟁력 있는 인력으로 인식하여, 보건관리자에 대한 교육지원, 재정지원, 그리고 업무환경 개선에 더 힘써야 할 것이다. 근로자는 보건관리자가 자신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건관리자의 활동을 지지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증진을 위해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관리자인 산업간호사는 누구보다도 근로자들의 상황과 사업장의 유해요인, 근로자 건강 유지, 증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평생건강관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따라서 보건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진 산업간호 전문인력의 확보가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산업간호사의 고용확대를 위한 근무조건 개선 및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